



존재들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모두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넷째, 축복과 저주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살아야 할 주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전해야 할 사람들로 선택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실현되었음을 전 하도록 새롭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섯째, 인생을 위한 외부적, 육적, 경제적, 사회적 축복이나 저주에 우선하여 영적 축복과 저주가 성경의 최우선적 관심사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완료된 이후 성경적 축복과 저주관은 복음과 이

복음의 결과에 귀속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직선적 흐름으로 관찰하면 기독교와 복음과의 관련성이 없는 축복과 저주는 별 의미가 없는 주제라고 말해야만 한다.

#### 가계저주론, 가계치유론의 저주 개념

가계저주론에 따르면 저주는 한 사람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의 손자, 그의 후손에게로 계속 여러 가지 통로로 대물림된다. 그 결과 특정 가계, 특정 가문에 특정한 죄와 저주가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유전되는 죄와 저주는 성경이 말하는 첫 사람, 아담의 것에서부터 그 가계의 족보를 구성하는 잊혀진 모든 전조들의 죄와 저주들이다.

이들이 말하는 저주란 무엇인가? 저주는 남